

# 황종우 해수부 장관,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중동전쟁 상황 점검

-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지시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(수)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하였다.

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.

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, 생필품 보급,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.

특히,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, 해양수산부-선사-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 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.

아울러,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,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. 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.

황 장관은 “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” 면서 “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면밀히 살펴보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사안전국<br>해사안전관리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인수 (051-773-585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희곤 (051-773-5851) |
|       | 해운물류국<br>해운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원배 (051-773-57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양지영 (051-773-5725) |
|       | 해운물류국<br>선원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이정로 (051-773-574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| 사무관 | 이은재 (051-773-5745) |

